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05~10/11

1. 미국-중국 항공 화물 운임 및 서비스 경쟁 심화

2. 무역 정책 변화와 USMCA 검토가 북미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3. 항공 화물 운영 및 MRO 투자 확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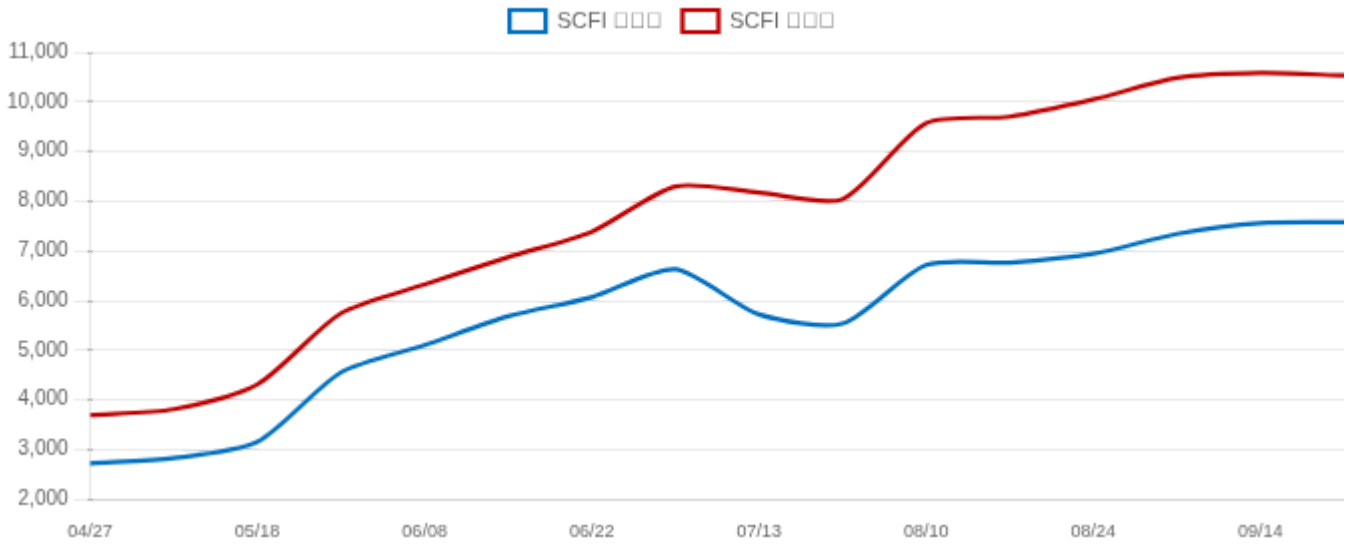
이번 주 미주 권역은 물류·공급망 부문에서 경쟁 심화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됨. 미국-중국 항공 화물 시장에서는 아마존의 자체 물류 진출로 경쟁이 격화되고 해상 운임은 하락세를 보이며 화주들의 선택 변화가 나타남.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에스엠시에이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을 개시하고 멕시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노동 메커니즘을 발동함에 따라 북미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됨.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과 물류 전략 다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아마존의 항공 화물 진출은 기존 항공사와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심화시키고, 해상 운임 하락은 대체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임. 아울러 유에스엠시에이 재검토와 노동 규제 강화는 북미 지역 생산 거점의 비용 증가와 운영 리스크를 초래하여, 기업들이 공급망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항공 화물 부문에서는 전자상거래 의존도가 낮아지고 고가치 기술 화물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터키항공은 대규모 유지보수·화물 운영 투자로 통합 네트워크와 자동화를 강화함. 이는 향후 항공 화물 시장의 경쟁 구도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미 시장에서도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와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전망임.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7,578 $/FEU	09/28	—	+3.3%
SCFI 미동안	10,528 $/FEU	09/28	—	+0.5%
KCCI 미서안	8,194	10/05	+2.4%	+10.4%
KCCI 미동안	11,201	10/05	-0.8%	+1.9%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9/28

미국-중국 항공 화물 운임 및 서비스 경쟁 심화

> **미국-중국 항공 화물 시장에서 아마존이 자체 물류 역량을 활용한 신규 항공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해상 운임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화주들의 운송 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마존은 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AGL) 내에서 중국발 미국행 항공 화물 서비스인 에어 SMP와 이코노미 에어를 새로 출시함. 에어 SMP는 상하이와 홍콩발 매일 항공편으로 미국 5개 지역 풀필먼트 센터로 직송되며, 픽업 후 7~10일 내 도착이 추정됨. 이코노미 에어는 표준 AGL 항공 서비스보다 낮은 운임을 제공함.

이러한 신규 서비스 출시는 중국발 미국행 항공 화물 수요의 견조한 증가와 성수기 대비 재고 보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아마존은 자체 물류 네트워크와 대량 물동량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운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음.

한편, 해상 운임은 태평양 노선에서 소폭 하락세를 보임. 제네타에 따르면 10월 7일 극동-미국 서안 스팟 운임이 40피트 컨테이너당 8,336달러로 2달러 하락하며 9월 중순 이후 첫 일일 하락을 기록함. 이는 미미한 변동이지만 운임 고점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아시아-유럽 노선 운임도 지속 하락하며 유럽 화주들의 연간 계약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커지고 있음.

항공 운임 하락과 해상 운임 조정은 화주들의 운송 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항공 화물의 경우 아마존발 경쟁 심화로 운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긴급 화물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의 항공 이용이 증가할 수 있음. 반면 해상 운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화물은 해상에서 항공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함.

- 아마존, 중국발 미국행 신규 항공 화물 서비스 2종 출시: 에어 SMP(상하이·홍콩발 매일 항공편, 7~10일 배송)와 이코노미 에어(저가 옵션)
- 에어 SMP는 FBA 이용 시 인바운드 배치 수수료가 없고 의류, 전자제품, 리튬 배터리 제품에 대한 추가 할증료가 없음
- 극동-미국 서안 스팟 운임 10월 7일 40피트 컨테이너당 8,336달러로 2달러 하락, 9월 중순 이후 첫 일일 하락
- 아시아-미국 동안 운임은 주간 0.5% 상승한 11,512달러, 북유럽-미국 동안은 1.1% 하락한 2,854달러
- 지중해발 운임은 호르무즈 위기 최고점 이후 43% 하락, 극동-북유럽은 34% 하락

전망

아마존의 항공 화물 서비스 확대로 미국-중국 항공 화물 시장에서 운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는 타 항공사와 포워더에게도 운임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상 운임은 계절적 수요 및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항공 화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일부 해상 화물의 항공 전환도 예상됨.

시사점

화주 — 아마존발 항공 서비스 경쟁 심화로 항공 운임 선택지가 확대되고 비용 절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해상 운임은 여전히 높아 운송 수단 결정에 신중해야 함.

포워더 —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운임 협상력 확보가 필요하며, 해상 운임 하락 추세를 활용한 복합 운송 솔루션 제공이 중요해짐.

항만·선사 — 해상 운임이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선사들은 운임 방어와 수익성 관리에 주력해야 하며, 항만은 물동량 변화에 대비한 운영 효율화가 필요함.

참고자료: Supply Chain Dive, Amazon launches 2 new China-to-US air freight options · FreightWaves, US West Coast container rates edge lower (검색일: 2026-10-11)

무역 정책 변화와 USMCA 검토가 북미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USMCA 연례 검토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하고, 멕시코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 대해 노동권 침해 혐의로 신속대응노동메커니즘(RRM)을 발동함에 따라 북미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USTR는 10월 7일 연방관보를 통해 USMCA 이행, 준수 및 북미 경제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공개 의견 제출을 요청함. 의견 제출 마감은 2027년 1월 12일이며, 공청회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임. 이는 미국이 지난여름 USMCA 연장을 거부한 이후 공식 협상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함.

동시에 USTR는 멕시코 푸에블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GLM Components Mexico에 대해 노동권 침해 혐의로 RRM을 발동함. 멕시코 독립 노조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으로 노동자를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함. 이에 미국은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의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함.

이러한 조치는 USMCA의 노동 및 원산지 규정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됨. 미국은 기존 NAFTA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USMCA에 노동권 보호 조항과 RRM을 포함시켰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멕시코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압박하고 있음. 또한, 원산지 규정 및 역내 부가가치 비율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북미 지역 생산 네트워크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북미 시장에 의존하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RRM 발동으로 인한 통관 지연, USMCA 재협상에 따른 관세 및 원산지 규정 변경 가능성, 노동 비용 상승 압력 등이 기업들의 생산 계획과 물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USTR, USMCA 연례 검토 위한 공개 의견 수렴 개시 (마감: 2027년 1월 12일, 공청회 일정 미정)
- 미국, USMCA 연장 거부 후 공식 협상 단계 진입
- 멕시코 푸에블라 소재 GLM Components Mexico에 대해 노동권 침해 혐의로 RRM 발동
- GLM Components Mexico 시설 생산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 시행
- RRM 발동은 USMCA 노동 조항의 실제 집행 사례로, 향후 멕시코 내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전망

USMCA 재검토와 RRM 발동은 북미 지역의 무역 및 공급망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노동권 보호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멕시코 내 생산 기지의 리스크가 커지고,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노동 환경 준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시사점

화주 — USMCA 재협상 및 RRM 조치로 인한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소싱 전략과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포워더 — 통관 지연과 규정 변경에 따른 물류 프로세스 조정 필요성이 커지므로, 고객사에 대한 리스크 정보 제공과 유연한 운송 솔루션 개발이 중요해짐.

항만·선사 — 북미 항만 물동량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노선 조정 및 선복 관리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Supply Chain Dive, USTR initiates next stage of USMCA review · USTR, United States Seeks Mexico's Review of Alleged Denial of Workers' Rights at GLM Components Mexico (검색일: 2026-10-11)

항공 화물 운영 및 MRO 투자 확대

> **항공 화물 시장에서 e-커머스 의존도가 낮아지고 고가치 기술 화물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터키항공은 2033년까지 23억 달러를 MRO 및 화물 운영에 투자해 통합 네트워크와 자동화를 강화함.**

미국 디미니미스 면세 조치 폐지로 2025년 5~6월 UPS의 중국발 일평균 물량이 전년 대비 34.8% 급감했으나, 2026년 UPS의 중국-미국 노선 성장과 페덱스의 국제 수출 소포 물량 1% 증가로 회복세가 나타남. 항공 화물 수요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반도체, AI 관련 고가치 기술 화물 중심으로 전환되며, 데이터센터 부품만 연간 약 1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9% 성장함.

고가치 화물이 저가 e-커머스 화물보다 우선적으로 항공 화물 용량을 차지하면서 다른 화주들은 예측 가능한 공간과 예약 기간이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음. 화물 구성 변화로 고가 화물의 서류 요구와 관세 심사가 강화되어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학 문자 인식 자동화가 수작업 데이터 입력을 줄이지만 통관 중개인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의 검증 역할은 여전히 필수적임.

터키항공은 2033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28년 말까지 가동 예정인 신규 시설에 투자해 연간 처리 능력을 45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33년까지 매출의 55% 이상을 e-커머스와 특수 화물에서 창출할 계획임. 화물기와 여객기 벨리 용량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운영하여 수요, 제품 구성, 수익률, 연결성에 따라 노선과 기종을 결정하며, 디지털화와 선제적 기단 관리를 통해 가동률과 서비스 신뢰성을 보호함.

항공 화물 시장의 수요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터키항공은 의약품, 신선식품, e-커머스 성수기에 맞춰 운항 빈도와 기종, 전세기 용량을 조정하고, 실시간 운영 통제와 수요 조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활용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예약의 90% 이상이 이미 디지털로 처리되고 있어 운영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향상되고 있음.

- 터키항공, 2033년까지 MRO 및 화물 운영에 23억 달러 투자, 2028년 말 신규 시설 가동으로 연간 450만 톤 처리 능력 확보.
- 2025년 5~6월 UPS 중국발 일평균 물량 전년 대비 34.8% 감소, 이후 2026년 회복세로 전환.
- 데이터센터 부품 항공 화물 연간 약 140만 톤, 전년 대비 39% 성장.
- 고가치 기술 화물이 저가 e-커머스보다 우선적으로 용량 점유, 기타 화주 예약 기간 축소.
- 터키항공 아태 지역 예약의 90% 이상 디지털 처리.

전망

항공 화물 시장은 고가치 기술 화물 중심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e-커머스 물량은 규제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항공사들은 화물기와 여객기 통합 운영, 자동화 투자, 수요 기반 용량 조정을 통해 수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통관 및 규제 전문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

시사점

화주 — 고가치 화물 우선 배정으로 인해 예약 가능 공간이 축소되고 리드타임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예약과 대체 경로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

포워더 — 고부가가치 화물 취급을 위한 통관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자동화 도구와 전문 인력의 결합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추구해야 함.

항만·선사 — 항공 화물 시장의 기술 화물 성장에 대응해 공항 시설 및 지상 조업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통합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데이터 연계가 핵심 과제임.

참고자료: Air Cargo Week, Investing US$2.3 billion in MRO and cargo operations · Air Cargo Week, Same aircraft, different cargo (검색일: 2026-10-11)